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12월 13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사도행전 17장 11절

설교제목 :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오늘은 5계명의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공경의 계명을 하나님의 비중만큼 무겁게 생각하십니다. 부모는 특히 자녀의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비중이 있는 계명인 만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5계명의 핵심적 원리는 ‘**다음 세대를 제자화하라**’는 것입니다. 쉰마, 또는 구약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5계명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구약의 수직적 지상명령인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5계명의 핵심은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롬12:2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본받다**’는 것은 영어로 ‘conform’입니다. ‘con’은 ‘같다’는 뜻이고, ‘form’은 ‘틀’입니다. ‘**틀이 같다**’는 것입니다. ‘**본받다**’는 것은 ‘**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반면 ‘**변화받다**’는 영어로 ‘transform’입니다. ‘trans’는 ‘바꾸다’는 뜻이고, ‘form’은 틀입니다. ‘**틀을 바꾸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conform’이냐, ‘transform’이냐입니다. ‘세상의 틀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틀을 바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본받을 것이냐’, ‘변화될 것이냐’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틀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가 전제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누스’, 즉 ‘mind’ 혹은, ‘세계관’,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세계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이 가르침 즉 공부입니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전통적인 인문학 분야인, **철학, 역사, 문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철학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문학은 생각의 힘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문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세상의 틀이 아닌 하나님의 틀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너그럽다**’는 ‘유게네스’입니다. ‘유’는 ‘good’, ‘**좋다**’는 의미입니다. ‘게네스’는 ‘기원’, ‘**족보**’란 뜻입니다. 즉 ‘**좋은 기원**’이란 뜻입니다. ‘너그럽다’는 ‘**집안이 좋다**’, ‘**기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 개혁신판에는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가 베뢰아 사람들을 너그럽다고 표현했습니까. 그 뒤에서 이유를 두 가지로 듭니다. 첫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뢰아 유대인들이 전혀 생소한 복음을 간절하게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진지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전하는 말을 냉소하지 않고 진지하게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간절한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세스 프로뮈미아스**’는, ‘**자발성을 가진 모든 열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뢰아 사람들은 진리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큰 호의와 열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린 마음과 열정입니다. 더불어 두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기**’ 때문입니

다. ‘상고하다’는 헬라어 ‘아나크리노’는 문자적으로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고전 10:25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대근동 당시, 신전에서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 팔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묻다’가 바로 ‘상고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상고한다’는 것은 ‘의심하다’입니다. 성경을 의심하고 따져 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여전히 카스트 제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접촉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사회가 그랬습니다. 불가촉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성경을 쥐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죄악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변화시키는 것도 말씀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말씀입니다. 5계명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돌아가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성경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기회입니다. 결론적으로 5계명이 이 시대를 향해 무엇을 요구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쉼, 즉 수직적 지상명령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말씀의 세대가 되도록 제자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설 수 있습니다. **행20:32**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가진 확신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세웁니다.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체크하고 점검하여 본질로 돌아가는 기회입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제 5계명의 핵심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롬12:2의 본받다(conform)와 변화하다(transform)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너그럽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5계명의 핵심원리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계명을 위한 실천적 방안의 핵심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말씀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